사회복지시설 탐방 ㉕ 우리선교회 유 장 주 원장

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사회교실 운영

"14명의 장애인이 단란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선교회는 포천시 자작동에 위치한 장애인시설로 유장주 원장을 시설장으로 14명의 자폐, 지체, 시각장애인 등이 함께 터전을 일구며 사회에 적응해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설로 미신고 시설이다.

이 시설에는 7명이 원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주간보호의 형태로 집과 선교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우리선교원은 (사)교통지체장애인포천시지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유장주 회장이 운영하는 시설로 사회적 자립생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유장주 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18년간 휠체어에 몸의 의지해 온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권리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선교원에는 유 원장과 부인 등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유 원장은 원내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제공한다.

"장애인이 스스로의 장애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과 자신감 배양에 중점을 맞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볼것이 아니라 사회인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시선 또한 일반인들에게서 요구되는 조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유 원장은 올바른 장애인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을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함께 교육시킴으로서 생기는 장애인과 일반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빨리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우리선교원의 경우 자작동 어린이들이 항상 머물다 가고 있어 정상인 어린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유 원장의 설명이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데로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선교원에는 최근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시설운영 방안을 연구중이다.

유 원장은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적응 훈련을 함께 실시 할 수 있는 자립적 형태로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교실을 운영할 계획인 우리선교원.

유 원장은 "사회교실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통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며 "훈련반과 직업반으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교실의 훈련내용을 보면 컴퓨터교육, 감각훈련, 언어훈련, 재활(치료)훈련이고, 작업반은 색종이와 골판지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선교회는 포천시 자작동에 위치한 장애인시설로 14명의 자폐, 지체, 시각장애인 등이 함께 터전을 일구며 사회에 적응해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설이다. (원안은 유장주 원장)

또한 별도의 공용프로그램으로 사회적응(현장학습), 대배(대인관계훈련), 일상생활훈련, 월례회의(사회성) 등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극대화시킬 예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한편 유 원장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봉사의 참여는 많으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많은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위해 여러 시설을 방문하지만 시설들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점수나 타인에 의한 봉사 참여보다는 장애인 시설에 '놀러간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보다 작은일부터 참여해 성취감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선교원의 경우 포천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개선을 위한 장애인 여가공간 확보에 주력해 주길 바랬다.

또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 혜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설립되길 바란다.

후원:농협 175-01-172282((사)교장협포천시지회)

문의:031-535-4986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쉼터

석 혜 승
보문정사 주지

프로의 자세를 가져라

프로와 아마추어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보수의 유무이다. 보수를 받고 하면 프로고, 좋아서 취미로 하면 아마추어다. 하지만 그것은 외형상의 기준이고 실질적인 기준은 실력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프로는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게을러서는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실력을 향상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말 그대로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지만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홀하게 생각한다. 빨리 해내려는 조급증 때문이다. 조급증은 항상 사고를 부른다. 쉬 지치게 만들고 쉬 포기하게 만든다. 프로는 아무리 급해도 기본을 다지는 마음자세를 잃어선 안된다. 프로의 자세 첫째 조건은 바로 기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자세이다. 학문이건, 운동이건, 기술이건 그 어떤 분야가 되었건 그 일에는 맥이 있고 리듬이 있다. 이것을 찾아야 한다. 맥을 찾지 못하면 경지에 오를 수가 없다. 막연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라 헛수고일 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노력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다. 기본이 다져지고 맥을 잡은 후에 하는 것이 노력이다. 노력은 반복이다. 반복은 진정한 프로를 만드는 힘이다. 반복은 익숙함을 만들고 그 익숙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믿음을 주게 된다. 그 믿음 이 바로 보수로 이어지고 그렇게 프로가 되는 것이다. 철저히 기본기를 다지면서 연구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반복할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프로의 삶을 살게 된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은미의 젖소 사랑이야기 ❹

우유와 함께하는 웰빙 라이프

이 은 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가산면 금현1리

서울 우유를 납품하는 영천 목장입니다. 힘찬 착유소리와 함께 목장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냉각기로 흰 우유가 들어옵니다. 집유차에 수집된 우유는 여러번 살균과정을 거쳐 서울우유 제2안산공장에서 우리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유로 시중에 나옵니다.

우유에는 칼슘, 철분, 미네랄, 비타민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에게 골다공증, 어린이에게는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유를 안 마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유의 불안정성, 환경 불량, 유당으로 인한 설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깨끗한 목장 현장 체험, 우유 요리체험 등 낙농인으로서 우유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우유요리에는 우유 요구르트, 우유빙수, 멸치볶음 우유밥, 우유빈대떡, 우유죽 등 집에서 손쉽게 요리 할 수 있는 우유 향이 가득한 웰빙 요리입니다.

지난 여름휴가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1명과 어른 5명 등 모두 16명이 속초로 갔습니다. 저는 김밥을 준비할까 생각하다 우유멸치 볶음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할 때 물량을 우유로 넣습니다. 검은 콩을 함께 넣고 밥을 하면 우유의 냄새가 없어집니다. 애호박을 돌려깍기를 해서 소금에 절이고 피망, 빨간 고추를 함께 넣어 멸치와 함께 볶습니다. 우유콩밥과 멸치 볶음을 함께 넣어 참기름을 넣고 주먹밥을 만들면 완성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 많은 우유, 멸치, 콩 등을 이용한 우유멸치 볶음밥을 학생들 소풍이나 견학할 때 해 주시면, 식어도 맛이 깔끔한 영양 높은 도시락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우유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우유입니다. 안심하고 많이 드세요

"일동농협 발전과 조합원 권익신장 최선"

제13대 신영필 일동농협조합장 就任

일동농협은 지난 12일 농협 3층 회관에서 12대 박광근 조합장 이임식 및 13대 신영필 조합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일동농협은 지난 5일 농협 3층 회관에서 12대 박광근 조합장 이임식 및 13대 신영필 조합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취임식은 박윤국 포천시장,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 이상만 경기도의회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내빈 220여명이 참석해 퇴임 박광근 조합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 및 이임사, 신임 신영필 조합장의 조합원에 대한 선서, 농협 뱃지 패용식, 취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취임한 신영필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일동농협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으로 제시한 농협발전협의회 운영, 벼육묘사업확대, 농기계 임대업, 당연직 여성이사제 도입, 장례식장 건립, 농기계·농약판매 전문인력 확보, 조합원 소득 증대 창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직원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영필 조합장은 지난달 9일 실시된 일동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소흘농협 책임경영 실현에 최선"

제12대 박범종 소흘농협조합장 就任

지난 12일 소흘농협 제12대 박범종 조합장 취임식이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농협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12일 소흘농협 제12대 박범종 조합장 취임식이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농협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취임식에 앞서 박범종 신임 조합장은 취임선거를 통해 "본인은 소흘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함에 있어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대와 조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조합장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조합원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흘농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농협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먼저 농협의 문턱을 낮추고 책임경영을 하는데 있어 농협 임직원들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파악할 뿐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재임하는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들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신임 조합장의 공약사항은 투명경영운영,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자문위원회 운영, 주사무소 이전 및 조합원 휴게소 운영, 농협장례예식장 추진, 수익사업 개발로 환원사업 확대, 문화복지사업 확대(원로·여성 조합원, 조합원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관내 불우이웃돕기 활동 등)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인터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한 희 수 · 내촌면 지부장

열악한 교육환경 극복위해 학부모 앞장서야

교육환경 극복위해 포천신문의 정확보도 기대

"내촌면의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으며 포천의 변방지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 뜻 있는 지역유지분들이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내촌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을 2년 역임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한희수(40·사진·내촌면 내리) 내촌면지부장의 말이다.

내촌면의 교육환경은 교사들의 오지학교이며 적당히 있다가 떠나는 학교로 알려져 있어 실질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학부모들 또한 과감한 지적과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기 쉽다. 이것이 내촌면의 교육환경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다.

또 지역에 환경감시단이 있지만 공장과 식당에서 폐수와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어 하천에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실정이다. 특히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사실도 심각할 지경이다. 한 지부장은 지역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내촌 팔야교회가 신북면 해뜨는집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한 지부장도 참가하여 봉사에 나선다.

한 지부장은 최근 내촌초등학교에서 경사가 났다고 한다. 단소부문에서 포천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경기도 대회에 포천시 대표로 경연대회에 출전한 것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큰 기쁨이지만 이일을 추진해온 교사의 노력에 학부모의 소극적 지원이 이같은 노력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한다. 이때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한복이 모두 달랐다는 점도 비협조적인 학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지부장은 이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촌면 지역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박 미 숙 · 화현면 지부장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자

"화현면의 교육과 청소년 문제에 관심 갖겠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박미숙(39·사진·화현면 명덕리)지부장은 "주부명예기자단의 정기모임에서 느낀 것은 주부들이 어떻게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놀랐으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루를 살아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게'를 생활신조로 삼아 살아온 박 지부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박 지부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업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게 지역경제의 현실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화현초등학교 어머니회장과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지부장은 "최근 일동중학교 학생들이 포천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겠다고 나서 긴장했던 적이 있었다"며 학생들이 본연의 역할인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지부장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화현면지부장으로서 현재 단원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지부를 활성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또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가 아닌 보다 크게 세상을 바라보고 화현면의 교육문제와 화현면의 청소년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사제공은 물론 봉사활동에 나서고 싶다고 한다.

화현초등학교에 최근 개장된 골프연습장에서 주부들이 함께 골프연습을 하고 있다는 박 지부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송우주공 입주 순조롭게 진행

신 형 숙
주부명예기자
송우주공2단지

거리에 넘쳐나는 외국 이주노동자들로 척박한 느끼마저 감돌던 송우리에 2001년 단지조성계획이 세워지고 2002년 착공해 지난 4월26일부터 입주가 진행돼 현재 입주율 80%수준에 이르고 있다.

각 단지마다 동과 동 사이에 녹지대 및 휴식공간을 넓고 안락하게 조성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주변환경 역시 쾌적한 자연경관을 살리고 주민들을 위한 운동, 휴식처를 마련하여 건강증진에 애를 쓴 노력이 역력하다.

1~5단지중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2단지는 주택법에 의거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16개동의 동 대표 및 2단지 회장(변명구)을 선출했으며 차후 자치회(노인회,부녀회) 결성도 눈앞에 두고 있어 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변명구 2단지회장과 이기철 2단지 아파트관리소장은 입주민간에 화합과 친목을 위해 앞장서고 향후 모범적인 단지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 항시 귀 기울이는 친근한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입주민과 주민대표 및 자치회간에 빈번한 갈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 협조로 주거문화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자와 오성 등 성현의 유덕 추모

포천향교 추계석전대제 봉행

포천향교는 지난 10일 공자 탄생 2556주년을 맞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위치한 포천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및 내빈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기석전대제를 봉행했다.

포천향교(전교 양재창)는 지난 10일 공자탄생 2556주년을 맞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위치한 포천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및 내빈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기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기 석전대제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초헌관으로, 홍성훈 포천시의회의장을 아헌관, 변진수 포천교육장을 종헌관으로 추대해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하는 포천향교는 1173년 창건했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선성현의 덕풍을 숭모하고 유학을 연구 강론하는 지방교육기관으로 임진왜란과 6·25전란으로 파괴된 것을 1962년 교궁을 중수하고, 1984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유림성금 등으로 대성전, 명륜당을 해체보수해 대지 583평 위해 총 건평 45평의 건물로 규모를 갖추게 됐다.

현재의 모습은 1988년과 1996년에 걸쳐 주차장, 담장 등 주변공사를 통해 갖춰졌다.

현재 포천향교에서는 대성전에 오성과 송조 4현, 신라때 2현, 고려때 2현 조선조 14현 모두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접경지역지원사업 마을회관 건립

포천시 창수면 주원1리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지난 13일 마을회관이 준공돼 마을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주원1리 마을회관은 창수면 주원리 277-1번지에 부지 661㎡(200평), 연면적 182.34㎡(55.2평), 2층 콘크리트 규모로 건축됐으며 1억4천315만2천원이 소요됐다.

주원1리(이장 이달호)는 59세대 13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달호 이장, 방광열 새마을지도자, 이막례 부녀회장이 마을을 이끌고 있다.

이달호 이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마을회관의 준공과 더불어 발전하는 마을이 되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마을회관의 효율적 활용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